

#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WHITE PAPER  
ABOUT  
YEMEN REFUGEES  
2018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WHITE PAPER  
ABOUT  
YEMEN REFUGEES  
2018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                      |    |
|----------------------|----|
| 발간사                  | 4  |
| 회고사                  | 5  |
| <b>표로 보는 1년의 발자취</b> |    |
| 예멘난민 업무처리 연표         | 8  |
| 언론취재 요청일지            | 14 |
| 보도 · 설명자료            | 17 |
| 주요 언론보도              | 18 |
| 난민심사 현황 · 통계         | 24 |
| <b>포토에세이</b>         | 26 |
| <b>프롤로그</b>          | 30 |

1부  
홀연히 날아든 난민

|                     |    |
|---------------------|----|
| <b>제1장 입국심사</b>     | 34 |
| 막이 오르다              | 34 |
| 시바의 후예, 제주무대에 서다    | 35 |
|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의 부침(浮沈) | 36 |
| 변화의 조짐              | 38 |
| 거대한 전체성의 실체         | 39 |
| 심사방향을 정하기까지         | 42 |
| 패턴 속의 진실            | 44 |
| 고국을 등진 사연           | 45 |
| <b>제2장 회부심사</b>     | 48 |
| 난민제도의 이해            | 48 |
| 춤추는 의문부호            | 49 |
| 최종 목적지는 이태원?        | 51 |
| 사우디에서 태어난 청년        | 53 |
| SNS가 꽃피운 봄          | 54 |
| 후티 반군의 얼굴           | 55 |
| 공항심사를 마치며           | 57 |

## 2부 난민 컨트롤타워

|            |                      |     |
|------------|----------------------|-----|
| <b>제1장</b> | <b>예멘 난민, 눈앞의 현실</b> | 62  |
|            | 예멘의 시겟바늘             | 62  |
|            | 후티 반군에 대한 이해         | 64  |
|            | 왜 싸우고 있나             | 66  |
|            | 내전의 상흔               | 68  |
|            | 예멘의 미래               | 69  |
|            | 이방인을 마주한 우리의 모습      | 70  |
| <b>제2장</b> | <b>제주청의 발걸음</b>      | 72  |
|            | 제주청장의 달력             | 72  |
|            | 떠돌이의 행로              | 75  |
|            | 손에 손잡고               | 78  |
|            | 거리의 부랑아              | 78  |
|            | 취업설명회                | 80  |
|            | 뒷손질                  | 82  |
|            | 가보지 않은 길             | 88  |
|            | 체류 부적격자              | 92  |
|            | 민원 1번지               | 95  |
|            | 과객을 위한 자리            | 98  |
|            | 사건사고와 미담             | 104 |
| <b>제3장</b> | <b>난민심사</b>          | 116 |
|            | 난민심사 돌입              | 117 |
|            | 여장부의 눈물              | 117 |
|            | 형 찾아 삼만리             | 119 |
|            | 부부의 속내               | 121 |
|            | 심사 결과표               | 122 |
|            | 남은 과제                | 131 |
|            | <b>에필로그</b>          | 148 |
|            | <b>책을 마치며</b>        | 151 |

|           |             |     |
|-----------|-------------|-----|
| <b>부록</b> | 언론 설명(보도)자료 | 154 |
|           | 참고자료        | 186 |



## 발간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육승훈

### 역사에서 현재와 미래를 배운다

2018년 한 해 우리 사회에는 제주 예멘난민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사건을 계기로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난민법 폐지, 난민수용 반대 등’ 국민 청원에 71만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께서 직접 제주도 난민 현황 파악을 지시하셨고, 국무총리께서는 대책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각 부처가 긴밀히 공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제주 예멘 난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며 엄정한 난민심사와 신원검증 강화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청은 국제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예멘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멘인의 대규모 입국에서부터 심사가 마무리되기까지 9개월의 시간이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앞으로 우리 앞에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그 모든 과정을 이 책에 오롯이 담았습니다.

‘역사에서 현재와 미래를 배운다’는 금언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이 백서를 통해 과거와 대화하고 현재를 성찰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육승훈

## 회고사



現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前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김도균**

### 이 기록은 제주 예멘난민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이한 2018년 제주 푸른 섬에 예멘이라는 나라 이름도 생소하고 외모만큼이나 사뭇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이 찾아들었습니다. 모국은 지옥 같은 전쟁으로 살 수가 없으니 평화의 섬 제주에 머물게 해달라고 난민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에 날아 든 549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은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태풍으로 변하듯이 순식간에 우리사회를 격렬한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제주청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심사와 인도적 지원, 국내외 언론과 양극단의 시민단체까지 상대해야 하는 힘든 업무를 맡았으나 박상기 장관님, 김오수 차관님, 차규근 본부장님과 각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 덕분에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멘인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한 12월까지 직원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한 주요 내용을 모두 기록한 것은 제주 예멘난민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기록이 책으로 나온다니 마지막 숙제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과 기록들이 알선기관의 난민심사관과 본부 및 기관장들에게 도움이 되고, 후일 출입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前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WHITE PAPER ABOUT YEMEN REFUGEES 2018

YEMEN  
SANAA

MALAYSIA  
KUALA LUMPUR

KOREA  
JEJU



#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 표로 보는 1년의 발자취

예멘난민 업무처리 연표  
언론취재 요청일지  
보도 · 설명자료  
주요 언론보도  
난민심사 현황 · 통계

## 포토에세이

## 프롤로그

# 예멘난민 업무처리 연표

## 예멘난민 업무처리 연표

### 주요 업무 처리 내용

- 2017. 12. 12.**
  - 쿠알라룸푸르-제주 항공노선 신규 취항
  - 말레이시아 체류 예멘인 제주 입국 본격화
    - 제주공항 난민신청 8명(전원 불허부)
    - 2017년 예멘인 총 52명 입국
- 2018. 1.~3.**
  - 예멘인 48명 입국
    - 1월 14명, 2월 24명, 3월 10명
- 4. 10.**
  - 예멘인 2명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허가
    - 입국 가속화, 공항 난민신청 쇄도
    - 4월 총 81명 입국
- 4. 30.**
  - 제주 난민신청자 출도제한 조치 시행
    - 예멘인을 포함한 제주도 입국 후 난민신청한 외국인의 거주지를 제주 지역으로 제한
- 5. 2.**
  - 예멘인 81명 입국, 언론 보도
    - 예멘 난민 대책회의 개최
- 5. 8.**
  - 예멘 → 제주 입국 사례 최초 발생
    - 말레이시아 단순 경유, 제주 입국
  - 제주청, 예멘난민 접수 전담창구 개설
- 6. 1.**
  - 예멘을 제주 무사증입국 국가 제외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발표
    - 예멘 난민신청자 관련 범정부적 대책 마련 촉구
- 6. 7.**
  - 제주청장, 제주경찰청 방문
    - 예멘인 숙소 순찰·치안활동 강화 당부
- 6. 8.**
  - 제주청장, 제주도청 국제관계대사 방문
  - 관리과장, 제주도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 6. 9.**
  - 예멘 난민신청자 조기 취업활동 허가
    - 신청일부터 6개월 미경과한 경우도 취업허가 하되, 1차 산업으로 업종 제한
  - 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 예멘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제외는 난민협약 위반 주장
- 6. 14.**
  - 1차 취업설명회 개최
    - 400여 명 참석, 250명 사업주와 연결



- 
- 6. 18.**
- 2차 취업설명회 개최
    - 250명 참석, 130명 사업주와 연결
  - 대한적십자사 무료 의료 지원
    - 제주청 앞마당에서 예멘인 의료 지원
  - UNHCR 한국대표부 성명 발표
    - 예멘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금지 등 주장
- 
- 6. 19.**
- 제주청·도청·경찰청 공동 언론 브리핑
    - 예멘인 인도적 지원 방안 등 발표
- 
- 6. 20.**
- 제주청장, 제주해양경찰청 방문
- 
- 6. 21.**
- 제주경찰청, 국민불안 해소 및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 
- 6. 24.**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청 방문
    - 예멘 난민신청자 관련 현안 논의
- 
- 6. 25.**
- 예멘인 난민심사 개시
    - 아랍어 통역직원(2명) 제주청 파견 근무
  - 제주청장, 언론간담회 개최
  - 제주도청,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 예멘인 3명, 체류지역 제한 처분 취소 소송제기
  - 임신부 등 7명, 출도제한 조치 해제
- 
- 6. 26.**
- 도내 33개 단체,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결성
  - 4대 종단(이주·인권협의회), 예멘 난민 수용 호소문 발표
  - UNHCR 친선대사 정우성, 제주포럼 참석
    - “난민문제 인권과 관용으로 접근해야...”
- 
- 6. 27.**
- 강경화 외교부장관, 제주포럼 참석
    - 원희룡 도지사와 예멘 난민문제 논의
  - 예멘난민을 위한 페이스북 개설
    - Jeju Immigration Service for Yemen Refugees
- 
- 6. 28.**
- 예멘 난민 특별전담반 회의 개최
    - 제주도청 회의실

## 예멘난민 업무처리 연표

주요 업무  
처리 내용

- 6. 29.
  - NGO 단체, 제주청 방문
    -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방안 논의
  - 법무부차관, 예멘 난민 대책 언론 발표
    - 난민법 개정, 난민심판원 도입 등 개선방안
  - 국가인권위, 제주청 방문
    -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 요청
- 6. 30.
  - 예멘인 현황 공식 집계
    - 2018년 입국자 561명, 난민신청자 549명
- 7. 1.
  - 제주청에 심사인력 6명 추가 파견
    - 난민심사관(4명)·아랍어 통역요원(2명)
  - 제주이주민센터, 예멘인 쉼터 제공
    - 舊 이주민센터를 숙소로 개조(43명 입소)
  - 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예멘인 쉼터 제공
    - 제주시와 서귀포시 8개소(60명 입소)
- 7. 2.
  - 고용주 대상 '아랍문화의 이해' 교육 실시
  - 대한적십자사 구호식품 50인분 보급
- 7. 3.
  - 예멘인 체류지 전수조사 착수
  - 아랍어 통역직원 이주민센터 지원 근무
    - 예멘인 체류·고용 등 민원상담
- 7. 5.
  - 본부, 예멘 난민 Q&A 설명자료 배포
    - 난민법과 난민현황 등 14개항 문답 자료
- 7. 10.
  - 법무부 차관, 제주 정책현장 시찰
    - 제주청·도청·경찰청·이주민센터 등 방문
- 7. 11.
  - 불교단체(조계종), 예멘인 숙소 제공
    - 사라봉 인근 게스트하우스 10명 수용
  - 로드인 선교회(대구 선교단체)
    - 예멘인 숙소 제공 및 한국어 교육 실시
- 7. 12.
  - 천주교구, '무릉공소' 숙소에 예멘인 입소 조치
- 7. 13.
  - 한국이민재단, 식자재와 통신시설 등 지원
- 7. 15.
  -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청 항의 방문

- 
- 7. 16.** •국무총리, 제7차 국가대테러회의 개최  
- 난민 증가에 따른 국민안전 대책 논의  
•예멘인(10세 이상) 마약검사 착수
- 
- 7. 17.** •예멘인 전원 체류지 소재 파악 완료
- 
- 7. 18.** •예멘인 미취업자 대상 경찰·국정원과 합동교육 실시  
- 5회, 228명 참석
- 
- 7. 24.** •예멘인 경유지(제3국) 범죄경력 조회 실시  
•예멘 난민 관련 2차 설명자료 배포
- 
- 7. 27.** •예멘 난민 멘토단 운영계획 발표
- 
- 7. 28.** •주한교황대사, 제주교구장에 기금 전달  
- 제주 체류 예멘인을 위한 교황 자선기금 1만 유로
- 
- 8. 1.** •제주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추가 지정  
- 12개국 추가 지정(총 24개국)  
•법무부장관, 국민청원 공식답변  
- 난민법 개정, 난민심사 강화 방안 등 발표  
•난민 지원 단체와 간담회  
- 범도민협의회·천주교이주사목센터 등
- 
- 8. 2.** •월드휴먼브리지 기부금 전달식  
- 제주청에서 이주민단체에 5,000만원 전달
- 
- 8. 3.** •제주청장, 도의회(의장) 방문  
- 예멘 난민 지원 추경예산 통과 감사 표시
- 
- 8. 9.** •관계기관, 예멘인 신원조회 회신  
- 테러 연계 의심인물 미 발견
- 
- 8. 13.** •예멘인 취업분야 건설·제조업으로 확대
- 
- 8. 14.** •민원 현장 방문(대책회의 등 수차례 방문)  
- 예멘인 숙소 인근주민의 민원 지속 제기
- 
- 8. 15.** •제주청, 무료진료 행사에 구호품 지원  
- NGO 합동으로 주관(성안교회, 3일간)
- 
- 8. 18.** •취업자 대상 교육 실시  
- 4회, 237명 참석  
- 한국사회 이해 및 기초법질서 등 교육
-



##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 예멘난민 업무처리 연표

주요 업무  
처리 내용

- 8. 22. •마약검사 양성 반응자 1명 검찰 수사의뢰  
•제주자치경찰단과 긴급 연락체계 구축
- 8. 25. •예멘인 숙소에 생닭 100마리 지원
- 8. 27. •00 의류 업체, 나옴센터에 의류 1,000점 기증
- 8. 30. •제주한라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 외국인 전문 진료 서비스 제공 합의
- 8. 31. •취업알선 혐의 인도인 조사종결(무혐의)
- 9. 7. •국악연습실 거주 예멘인 숙소 이전 지원
- 9. 10. •마약검사 양성반응자 2명 경찰에 수사의뢰  
•기독교협의회, 이주민센터에 1,000만원 기부
- 9. 14. •1차 심사결과 발표,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 9. 17. •국가인권위, 제주청 방문  
- 예멘 난민 인권보호 등 논의
- 9. 18. •마약검사 양성반응자 1명 경찰에 수사의뢰  
•예멘인 폭탄테러 혐의자 조사(무혐의)
- 9. 19. •국회입법조사처, 제주청 방문  
- 난민 심사인력·예산 의견 교환
- 9. 25. •이주민 한가위행사에 식자재 지원
- 9. 2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제주 방문  
- 제주도지사, NGO 단체와 난민현안 논의
- 10. 1. •인권위 광주사무소, 제주청 방문  
- 마약검사와 범죄조회의 형평성 문제 제기
- 10. 2. •마약검사 양성반응자 4명 소환조사  
- 경찰청 마약수사대 (~10.4)
- 10. 4. •경찰청 등 관계기관 특별간담회 개최  
- 제주 무사증입국자 무단이탈 방지대책 논의
- 10. 8. •00업체, 예멘인 숙소 추가 제공(총 6채)



- 
- 10. 17.** • 2차 심사결과 발표  
- 인도 339명, 불인정 34명, 보류 85명  
• 난민인권단체 성명 발표  
-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한 난민심사 촉구
- 
- 10. 18.** • 난민반대단체, 제주청 항의 방문  
- 예멘 난민신청자 즉각 추방 요구
- 
- 10. 22.** • 인도적 체류허가자 대상 교육 실시  
- 10.22~24, 출입국관리법, 기초법질서 등
- 
- 10. 24.** • 법무부장관,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면담  
- 난민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 
- 11. 14.** • 관리과장, 토론회 참석(도의회)  
- '제주 난민 사태와 과제'
- 
- 11. 26.** • 마약검사 양성반응자 4명 검찰 송치(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
- 
- 11. 29.** • 난민반대 단체, 제주청 항의 방문  
- 예멘 난민신청자 즉각 추방 요구
- 
- 12. 5.** • 유엔난민기구 권한대행, 제주청 방문  
- 제주 난민신청자 관련 현안 논의
- 
- 12. 14.** • 3차(최종) 심사결과 발표  
- 인정 2명, 인도 50명,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촉구
- 
- 12. 17.** • 인도적 허가자(인정자 포함) 교육 실시  
- 12.17~12.18,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 등
- 
- 12. 21.** • 국정원 대테러센터장 제주 방문  
- 관리과장, SNS 특이사항 심사내용 등 설명
- 
- 12. 27.** • 전남 소재 0000중공업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예멘인 100여명 취업 중
- 
- 12. 31.** • 최종 심사결과 통계  
- 561명 입국, 549명 난민신청  
- 출도제한 전 출도 59, 출도해제 7  
- 난민심사 대상자 484(제주 출생 1명 포함)  
(인정 2, 인도 412, 불인정 56, 직권종료 14)  
- 인도적 허가자 중 출도자 276명

## 언론취재 요청 일지

### 예멘난민 업무처리 연표

#### 주요내용

- |               |               |                                                                                                                                                                                                                                                           |
|---------------|---------------|-----------------------------------------------------------------------------------------------------------------------------------------------------------------------------------------------------------------------------------------------------------|
| <b>5. 2.</b>  | <b>제주신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난민 신청 현황</li> <li>- 2018년 말레이시아-제주 직항 노선으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현황</li> <li>- 2017년 난민신청자 최다 출신국가와 사유</li> </ul>                                                                                                    |
| <b>5. 3.</b>  | <b>KBS 제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난민 신청 현황</li> <li>- 최근 3년 예멘인 제주 입국 현황</li> </ul>                                                                                                                                                           |
|               | <b>KCTV</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난민 신청 현황</li> <li>- 일반적인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소개</li> </ul>                                                                                                                                                          |
|               | <b>뉴스1</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2일 경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수</li> <li>- 2018년 예멘인 입국자 통계</li> <li>- 2018년 예멘인 입국거부 건수</li> <li>- 2018년 예멘인 난민신청 건수</li> <li>- 제주지역 난민 신청 현황</li> </ul>                                                                  |
| <b>5. 9.</b>  | <b>제주신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예멘인 무사증제도 이용 입국 및 난민신청 급증과 관련한 법무부와 제주청의 대응책</li> <li>- 난민신청자의 심사기간 동안 취업활동 허가 여부</li> <li>- 난민신청자의 임시 거처 마련 여부</li> <li>- 예멘 난민신청자의 체류지역 확대 비율</li> <li>- 폭발적 난민증가세에 따른 통역 및 난민심사관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li> </ul> |
| <b>5. 10.</b> | <b>제주의 소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여부</li> <li>- 난민신청 후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li> <li>- 난민신청자의 임시 거처 마련 여부</li> <li>-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 판단 방식</li> <li>- 언론의 '가짜난민', '허위난민'이라는 표현에 대한 출입국의 입장, 난민신청자 등 하위난민 적발 사례건수</li> </ul>             |
| <b>5. 14.</b> | <b>JIBS</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난민신청 현황(국적별)</li> <li>- 2018년 제주지역 난민신청 건수</li> </ul>                                                                                                                                                       |
| <b>5. 31.</b> | <b>KBS제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난민신청 현황(국적별)</li> <li>- 2018년 5월 현재 난민 인정자수는 '0명'임</li> <li>- 난민 신청사유별 현황</li> <li>- 예멘인 제주 입국 현황</li> </ul>                                                                                                |



|               |                       |                                                                                                                                                                                                                                                                                         |
|---------------|-----------------------|-----------------------------------------------------------------------------------------------------------------------------------------------------------------------------------------------------------------------------------------------------------------------------------------|
| <b>6. 11.</b> | <b>미디어<br/>제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난민신청 현황(국적별)</li> <li>- 난민신청자의 체류가능 기간</li> <li>- 순찰강화 예정인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위치, 난민들의 주요 체류장소</li> <li>- 적극 취업허가와 관련하여 인력부족 업종은 무엇이며, 취업허가는 비자 발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li> <li>- 중국난민신청자에 대한 예멘인과 동일 수준의 허가 여부</li> </ul>                                |
| <b>6. 12.</b> | <b>제주의<br/>소리</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자격외취업허가의 근거 규정</li> <li>- 현재까지 취업허가를 신청한 난민신청자 수</li> <li>- 6월 중 예정되었다는 취업설명회 진행일정과 내용</li> </ul>                                                                                                                          |
| <b>6. 18.</b> | <b>연합뉴스</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수 및 난민신청자 통계, 난민신청자의 남녀 비율, 연령</li> <li>- 예멘인의 입국 사유</li> <li>- 예멘인 중 입국 직전 체류지가 말레이시아인 사람의 비율</li> <li>- 난민 생계 지원 신청자 수와 실제 지원자 수</li> <li>- 난민 생계비 지원 예산 및 실제 집행 비용</li> </ul>                                                   |
|               | <b>제주신문</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 반대목소리에 대한 제주청의 입장</li> <li>- 향후 난민 관련 대책</li> </ul>                                                                                                                                                                      |
| <b>6. 19.</b> | <b>MBC<br/>아침발전소</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대책</li> </ul>                                                                                                                                                                                                         |
| <b>6. 20.</b> | <b>KCTV</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현황과 배경</li> <li>- 예멘인 난민신청 현황 및 전망</li> <li>- 제주 거주 예멘인들을 위한 지원책</li> </ul>                                                                                                                                                        |
| <b>6. 22.</b> | <b>SBS<br/>모닝와이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난민신청 진행상황</li> <li>-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절차와 소요시간</li> <li>- 예멘난민신청자수 등 관련 현황</li> <li>- 급격하게 많아진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처상황</li> </ul>                                                                                                                 |
| <b>7. 4.</b>  | <b>영국일간지<br/>더가디언</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예멘 난민들의 제주 유입이 제주청에 미친 영향</li> <li>- 난민신청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 난민심사 준비 과정에 발생한 어려움은 무엇인지</li> <li>-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지</li> <li>- 이번 경험을 통해 제주청이 새롭게 배운 점은 무엇인지</li> <li>- 예멘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더 쉽게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li> </ul> |

## 예멘난민 업무처리 연표

### 주요내용

- |               |                      |                                                                                                                                                                                                                                                                                                                                                                                                                   |
|---------------|----------------------|-------------------------------------------------------------------------------------------------------------------------------------------------------------------------------------------------------------------------------------------------------------------------------------------------------------------------------------------------------------------------------------------------------------------|
| <b>7. 12.</b> | <b>KBS<br/>추적60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취업현황</li> <li>- 고용주에 대한 이슬람 문화이해교육계획 일정, 난민신청자 중 심사 종료 후 교육대상의 범위</li> <li>- 도내 연도별·국적별 난민신청자 수</li> <li>- 도내 중국인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 사유</li> <li>- 도내 중국인 난민신청자의 체류지역 및 취업현황</li> <li>- 도내 중국인 난민신청자 중 도내 체류인원</li> </ul>                                                                                                                                         |
| <b>7. 13.</b> | <b>뉴스타파<br/>목격자들</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멘 난민의 도내 유입 증가 원인</li> <li>- 난민법 시행 후 국가별 난민신청자수 및 난민 수용 추이 현황</li> <li>- 난민 주거, 취업 등 도내 문제 현황</li> <li>- 난민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기준, 현재 지급 현황</li> <li>- 난민지원 현황</li> <li>- 난민신청자 및 난민 수용에 대한 지원 대책</li> <li>- 난민문제에 있어 제주청 차원에서의 어려움과 한계점</li> <li>- 취업설명회를 통해 양식장에 취업한 예멘 난민신청자 수</li> <li>- 난민신청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li> <li>- 취업 후 해고된 예멘 난민신청자 비율</li> <li>- 난민심사관 수</li> </ul> |
| <b>7. 23.</b> | <b>독일라디오<br/>ARD</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연도별 예멘난민 신청자 수</li> <li>- 예멘난민의 제주입국 사유</li> <li>- 한국 정부의 예멘난민 지원 내역</li> <li>- 예멘난민 취업허가 현황</li> <li>- 예멘난민들로 인한 문제점이나 사고 발생 현황</li> </ul>                                                                                                                                                                                                                           |
| <b>7. 25.</b> | <b>일본<br/>TV도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제주청 촬영 협조 요청</li> <li>- 예멘 난민 신청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li> <li>- 예멘 난민과 제주 관광에 대한 영향</li> </ul>                                                                                                                                                                                                                                                                       |
| <b>8. 20.</b> | <b>CBS</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종교 난민신청에 대한 자료 및 취재 요청</li> <li>- 특정종교 난민신청자, 인정·불인정 통계</li> <li>- 특정종교 난민신청자에 대한 효율적 입국 관리방안</li> </ul>                                                                                                                                                                                                                                                               |
| <b>9. 3.</b>  | <b>미디어<br/>제주</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청 난민신청 접수 현황</li> <li>- 난민 접수 후 제주 체류 현황</li> <li>- 제주청에 난민신청한 중국인 현황</li> <li>- 제주청의 난민인정 현황</li> <li>- 중국인의 경우 종교를 이유로 난민을 인정하지 않은 사유</li> <li>- 난민 소송 현황</li> </ul>                                                                                                                                                                                                 |

## 보도 · 설명자료

### 보도 · 설명자료

#### 주요내용

- 6. 19. 올해 난민신청 18000명 예상 3년 내 12만명 넘어설 것으로  
-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 6. 19. 「난민을 보호하지 않는」 난민보호국의 민낯」 관련 설명자료
- 6. 20. 「난민신청자의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생계비 과다 지급」 관련 설명자료
- 6. 25. 「일단 신청하면 최대 5년 체류, 난민 심사의 빈틈」 관련 설명자료
- 6. 29.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 7. 5.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 순조롭게 진행  
〈법무부 고위 관계자, 제주 방문하여 상황점검〉  
- 예멘인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 언론 및 SNS 게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제공
- 7. 10. 법무부 차관,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 현장 방문  
- 엄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 지시, 원희룡 지사와 난민 현안 협력방안 논의
- 8. 23. 「그들은 왜 난민을 반대하는가... '증가세·이슬람·두려움·혈세낭비」 관련 설명자료
- 9. 14.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1차 발표  
- 엄정한 신원검증을 통해 법질서 준수 조건부 임시 체류허가 결정
- 10. 17.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  
-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 보류 85명
- 12. 14.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  
-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 주요 언론보도

### 주요 언론보도

#### 주요내용

- |        |      |                                                                                                                                                                |
|--------|------|----------------------------------------------------------------------------------------------------------------------------------------------------------------|
| 1. 30. | 세계일보 | 체류 위해 난민신청...제주도 '몸살'                                                                                                                                          |
| 5. 3.  | 제주신보 | 중동 출신 예멘인 78명 제주에 왜 왔나?                                                                                                                                        |
| 6. 12. | 한라일보 | 난민신청 예멘인 519명 어떡하나...                                                                                                                                          |
| 6. 18. | 조선일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만 500명, 예멘 난민을 어찌나</li> <li>•'예멘 난민' 올해만 500여명...화들짝 놀란 제주</li> </ul>                                                |
| 6. 18. | 동아일보 | "제주 예멘난민 받지 말라"<br>靑 청원...근거 없는 혐오 논란                                                                                                                          |
| 6. 19. | 중앙일보 | 제주 예멘 난민 500명...“수용 반대”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
| 6. 19. | 한국경제 | 급증하는 난민...한국으로 왜?<br>- 비용(브로커 가격) 싸고 신청만 하면 2년 체류                                                                                                              |
| 6. 20. | 한겨레  | "제주 예멘 난민에 인도주의적 대우...추가 입국은 불허"                                                                                                                               |
| 6. 22. | 경향신문 | 제주 '무사증 입국' 다시 쏜페 논란                                                                                                                                           |
| 6. 22. | 매일경제 |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 정부가 나서 막아야                                                                                                                                       |
| 6. 23. | 조선일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체류 난민 어느새 3만5000명</li> <li>•돈 벌로 들어온 외국인 체류기간 늘리려고 난민 신청하는 경우 많아</li> <li>•난민 신청 상반기에만 7737명...1년새 2배 급증</li> </ul> |
|        | 중앙일보 | 난민 신청 4만명, 인정은 839명뿐                                                                                                                                           |



|        |      |                                                                                                          |
|--------|------|----------------------------------------------------------------------------------------------------------|
| 6. 25. | 동아일보 | 예멘인 난민심사, 이르면 이번 주 시작                                                                                    |
|        | 조선일보 | 일단 신청하면 최대 5년 체류...난민 심사의 '빈틈'                                                                           |
|        | 동아일보 | "제주선 제주법 따라야죠"...무슬림 금기 깨며 일하는 '제메니'                                                                     |
| 6. 26. | 조선일보 | 난민 브로커 있었나...예멘인들 "서울 취업 된다길래 제주 왔다"                                                                     |
|        | 한겨레  | 난민심사 시작된 예멘인 "제주도가 작은 교도소"                                                                               |
|        | 세계일보 | 제주 '예멘 난민수용' 놓고 찬반논란 가열                                                                                  |
|        | 국민일보 | '예멘 난민' 향해 혐오 폭발...주말 첫 反난민 시위 예고                                                                        |
|        | 서울신문 | 난민 논란, 결혼·노동 이주민 혐의로 확산되면 안 돼                                                                            |
| 6. 27. | 중앙일보 | 정우성, 제주포럼서 "비자로 예멘 난민 제한 안 돼"                                                                            |
| 6. 28. | 한겨레  | 제주 시민사회 '난민 보호' 뭉쳤다                                                                                      |
| 6. 29. | 조선일보 | '취업 난민' 아닌 진짜 난민 보호해야                                                                                    |
| 6. 30. | 한국일보 | "난민심사 늦어도 10월까지 마무리"<br>법무부, 담당인력 늘려 속전속결, 난민심판원 신설 이의절차 간소화<br>- '가짜 난민' 방지 위해 규정 강화, 시민단체 "난민보호 후퇴" 반발 |
|        | 조선일보 | 가짜난민 잡을 난민심판원 신설...제주, 심사기간 3개월로 단축<br>법무부, 난민 종합대책 발표                                                   |
|        | 동아일보 | 난민심사 기간 줄여 취업에 악용 막는다                                                                                    |
|        | 한겨레  | "난민 심사 8개월서 2~3개월로 줄일 것"                                                                                 |



## 주요 언론보도

### 주요내용

|        |      |                                                                                            |
|--------|------|--------------------------------------------------------------------------------------------|
| 7. 2.  | 한국일보 | “예멘 난민 근거없는 혐오 말아야” “개인 이익 위해 들어와 수용 안돼”<br>주말 도심 찬반집회 잇따라                                 |
|        | 한겨레  | 예멘 난민 품었다가 ‘부대끼는’ 제주                                                                       |
|        | 세계일보 | • 물려드는 난민에…제주 무비자 논란 가열<br>• 법 악용한 ‘가짜 난민’ 강제 출국 “근거없는 혐오 멈추고 포용해야”<br>– 난민 수용 놓고 찬반 논란 가열 |
|        | 한국경제 | “난민보다 국민 안전” VS “혐오 대신 포용을”                                                                |
|        | 조선일보 | 나란히 열린 난민 찬반 집회                                                                            |
| 7. 3.  | 조선일보 | 예멘 난민 신청자들 흥기 들고 서로 폭행<br>제주 숙소서 설거지 놓고 시비                                                 |
|        | 한국일보 | “예멘 난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보호하겠지만 무제한 수용은 안 돼”<br>원희룡 제주지사 인터뷰                                  |
|        | 서울신문 | 예멘 난민 위험?…범죄 신고는 ‘0’                                                                       |
| 7. 4.  | 국민일보 | 예멘 난민 사태 외국인 정책에도 ‘불똥’                                                                     |
| 7. 5.  | 동아일보 | 난민 브로커들 檢 송차…가짜 난민 1000명 넘게 받아                                                             |
|        | 한겨레  | 제주 예멘인 고용주에게 걸려온 전화                                                                        |
|        | 경향신문 | 예멘 난민 사태가 일깨운 것들                                                                           |
|        | 세계일보 | 제주 예멘 난민 논란…솔로몬의 해법은                                                                       |
| 7. 11. | 한국경제 | ‘난민법’ 눈치만 보는 여아지도부                                                                         |



|        |      |                                                  |
|--------|------|--------------------------------------------------|
| 7. 12. | 국민일보 | “난민 문제의 미래, 유럽 보면 알 수 있다”<br>난민법 개정 국민토론회        |
| 7. 13. | 한국경제 | ‘가짜 난민 막아달라’ 국민청원 첫 70만 돌파<br>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내놓겠다” |
| 7. 14. | 한국경제 | ‘난민 입국 반대’ 청원 70만명 돌파, 대통령도 피란민 출신…<br>곤혹스런 靑    |
| 7. 23. | 매일경제 | ‘예멘 난민’ 후폭풍…신청제한법 줄줄이 발의                         |
| 7. 25. | 경향신문 | 난민보다 자국민 안전?                                     |
| 7. 27. | 동아일보 | ‘대한민국호’에 난민을 얼마나 태울까                             |
| 8. 2.  | 서울경제 | 테러 위협·중대범죄자 강제송환, 박상기 장관 “법적 근거 만들 것”            |
|        | 국민일보 | 차 법무 “난민심사 강화, SNS 계정 제출 의무화”                    |
|        | 세계일보 | 박상기 “난민법 폐지 어려워…심사 강화”                           |
| 8. 6.  | 중앙일보 | 20대 78% 여성 68% 예멘 난민 수용 반대                       |
| 8. 7.  | 중앙일보 | “국민 안전 우려…난민문제, 인권으로 덮고 갈 문제 아니다”                |
| 8. 9.  | 국민일보 | 난민신청자, SNS 계정 제출·전염병 검사 의무화한다                    |
| 8. 23. | 한국경제 | 여론전으로 변진 ‘난민 논란’                                 |
| 8. 25. | 중앙일보 | 난민 포용 필요하지만 옥석은 가려내야                             |
| 9. 3.  | 세계일보 | 법무부는 난민문제 풀 책임자인가                                |
| 9. 4.  | 세계일보 | “난민도 ‘똑같은 존엄성 가진 인간’ 인정해야”                       |

#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 주요 언론보도 주요내용

|         |      |                                                                                           |
|---------|------|-------------------------------------------------------------------------------------------|
| 9. 6.   | 한국일보 | 난민법 개정 '공정'보다 '신속'에 방점                                                                    |
| 9. 13.  | 문화일보 | 종각역 4번출구선 "난민과 함께"...3번출구선 "수용 반대"                                                        |
| 9. 15.  | 경향신문 | 제주 난민신청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
| 9. 18.  | 세계일보 | 허위 난민신청 중국인·알선책 3명 구속                                                                     |
| 9. 27.  | 조선일보 | '무비자 제주' 악용한 불법 입국 정부가 막아야                                                                |
| 10. 2.  | 조선일보 | 외국인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해야                                                                       |
| 10. 18. | 세계일보 | 제주 입국 예멘인 난민 인정률 '0%'<br>법무부, 458명 심사결과 발표                                                |
|         | 국민일보 | 체류허가 받은 예멘인들 제주 떠나 타지 갈 수 있다                                                              |
|         | 한국경제 | 난민, 그 복잡성과 특수성                                                                            |
| 11. 1.  | 문화일보 | 위장난민·범죄 우려 있지만..."인도적 체류에 마음 열자"<br>- '난민' 놓고 엇갈린 시민·정치권                                  |
| 11. 5.  | 매일경제 | 줄리 "예멘 난민 지원 韓 정부에 감사"                                                                    |
| 11. 19. | 한겨레  | "'배부른 위선자'라 욕먹어도..."난민 차별 반대" 계속 해야죠                                                      |
| 11. 22. | 조선일보 | "가짜 난민은 송환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이연주 의원<br>발언 논란                                                |
| 11. 28. | 조선일보 | "난민, 아픈 역사 겪은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똑같은 환경에서<br>살다가 전쟁 겪었을 뿐"<br>-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활동하는 배우 정우성 본지와 인터뷰 |



---

**12. 15. 동아일보** 제주 입국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

---

**한국경제** 제주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했지만...인권위-법무부 난민심사 '정면충돌'

---

**12. 17. 동아일보** 법원 "난민 인정 안돼도 인도적 체류 소송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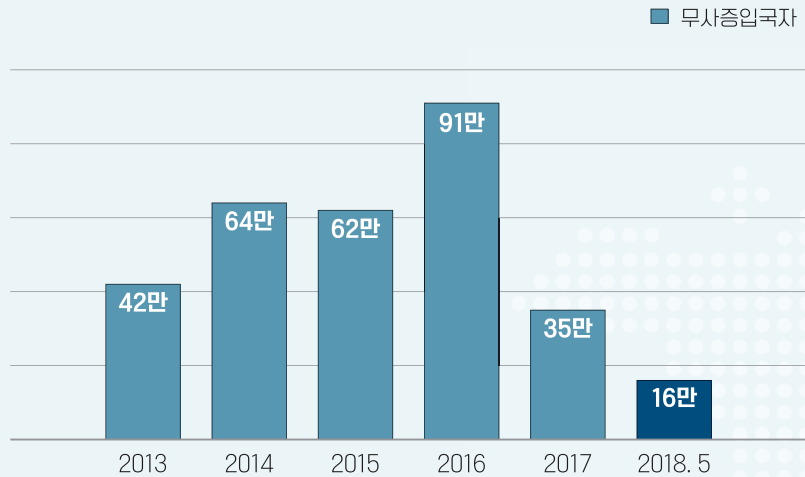
---

**12. 29. 중앙일보** 예멘 내전 총성 멈췄지만...충돌 불씨 많아 불안한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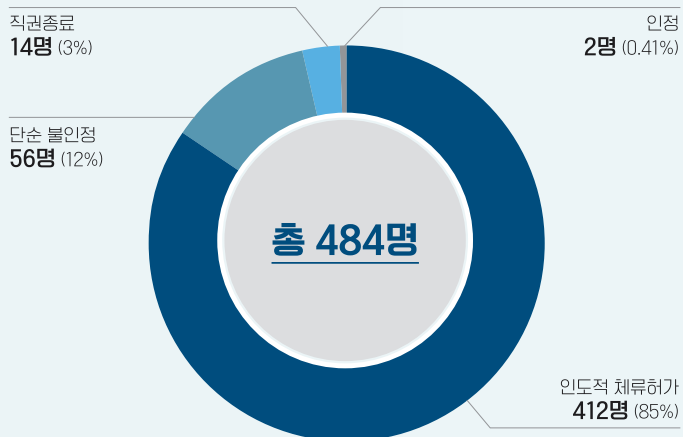
## 난민심사 현황 · 통계

### 제주무사증입국자 현황

2018.5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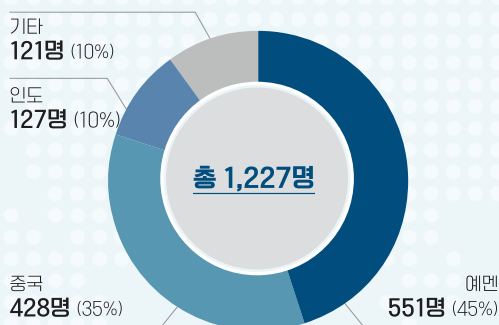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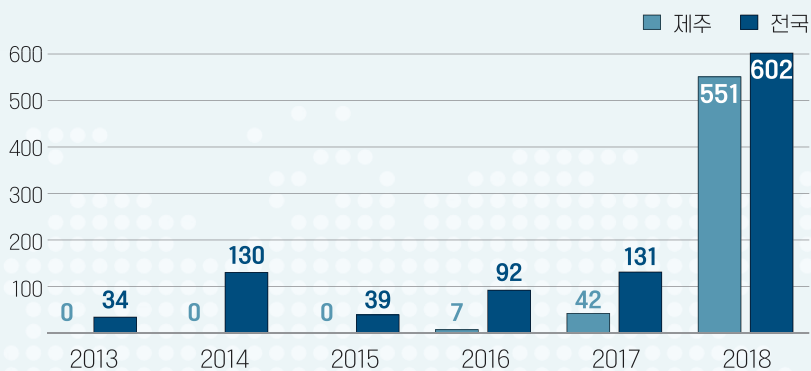


### 제주 예멘난민 심사 결과





## 제주 · 전국 난민신청 통계



## 난민심사팀 개편

청장  
난민심사관  
심사지원,  
처우, 송무 등  
심사전담

통역지원  
(아랍어)  
심사지원,  
일정관리 등

### 개편 전

김도균 (제 주)  
강○○ (제 주)  
이○○ (제 주)

임○○ (제 주)

### 개편 후

김도균 (제 주)  
강○○ (제 주) → 강△△ (제 주)  
이○○ (제 주)

조○○ (인천공항), 안○○ (서 울)  
박○○ (인천공항), 이○○ (여 수)  
오○○ (제 주)

이○○ (인천공항), 정○○ (인 천)  
백○○ (서 울), 김○○ (부 산)

임○○ (제 주)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법무부차관,  
난민심사 직원 격려차 제주청 방문  
(2018.6.29.)

## 예멘 국가 개황



**인 구** | 2,957만 9,986명(세계 50위)  
**면 적** | 52만 7,968km<sup>2</sup>(남한의 5배)  
**수 도** | 사나(Sana'a)  
**GDP** | 165억\$(세계 1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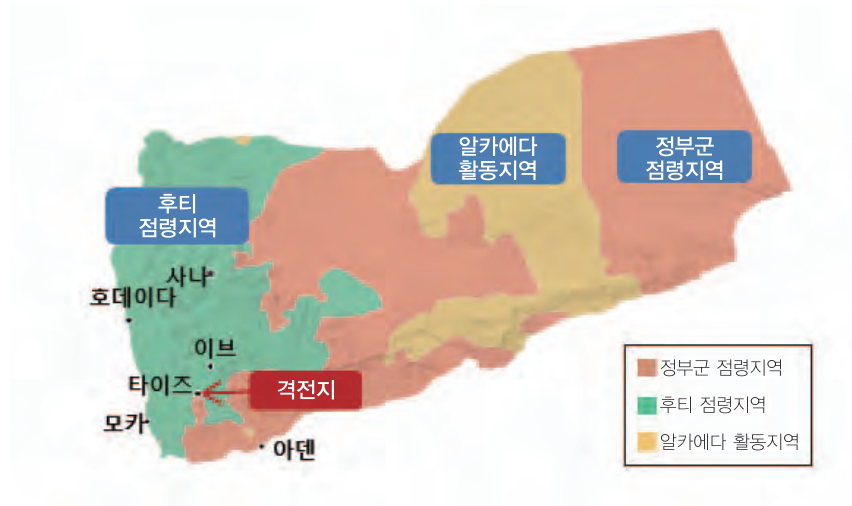
## 내전의 상흔





##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 예멘 사태 주요일지



|           |                                |
|-----------|--------------------------------|
| 1918년     | 영국에 의해 남·북 예멘으로 분리             |
| 1955년     | 북예멘 공화정 수립                     |
| 1967년     | 남예멘 공산 정권 수립                   |
| 1990년     | 예멘공화국으로 통일                     |
| 1991년     | 초대 대통령으로 살레 선출                 |
| 2011년 11월 | '아랍의 봄' 확산, 독재자 압둘라 살레 대통령 퇴진  |
| 2014년 7월  | 예멘 북부 시아파 후티 반군, 반정부 무장봉기      |
| 2014년 9월  | 후티 반군, 수도 사나 점령                |
| 2014년 10월 | 후티 반군 남하, 남서부 물류요충지 호데이다 점령    |
| 2015년 1월  | 후티 반군, 대통령궁 점령 (하디 사임, 내각 총사퇴) |
| 2015년 3월  | 사우디 주도 아랍동맹군 결성, 예멘 내전 개입      |
| 2015년 7월  | 하디 정부, 아랍동맹군이 탈환한 아덴으로 도피      |
| 2016년 8월  | 평화협상 결렬, 연합군 공습 재개             |
| 2017년 12월 | 살레 전 대통령, 후티 반군에 피살            |
| 2018년 6월  | 연합군, 반군 거점 호데이다항 탈환            |
| 2018년 12월 | 호데이다 지역 휴전 합의                  |



WHITE PAPER  
ABOUT  
YEMEN REFUGEES  
2018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옛 시인이 노래했다.

“고난에 단련된 낙타조차 다리를 접고 마는  
멀고 먼 여정일지라도  
‘사나’는 반드시 보아야만 한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시바(예멘) 여왕

고대 세계의 맨하탄. 아랍의 하와이라 불렀던 천혜의 관광자원이 가득한 나라. 모 카커피의 고향이자 아라비안나이트에 등장하는 동화 같은 나라.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이 나라 사람들이 홀연히 제주도로 날아들었다.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왜 조국을 떠나야만 했을까.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바닷길 길목에 있다. 지정학적 위치 덕에 예로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한 데다 강수량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그리스의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축복받은 아라비아’라 불렀을 정도로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다.

수도 ‘사나’는 인류가 처음으로 정착한 도시 중 하나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이 건립한 지역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사나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문화유적이자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예멘의 고유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서남단에 위치한 ‘모카’는 커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모카는 커피를 수출하던 예멘의 항구 이름인데 커피가 얼마나 맛이 좋았던지 커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하와이완 코나, 예멘 모카를 묶어 ‘세계 3대 커피’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예멘 모카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멘 커피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했던 커피로도 유명하다.



이런 ‘축복받은 아라비아’가 내전의 포화에 휩싸이면서 지금은 중동의 화약고가 되었다. 3년 동안 계속된 폭격과 교전으로 1만 명이 숨지고, 100만 명이 콜레라에 감염되었으며 국민 대다수가 굶주리고 있다. 200만 명의 피난민이 생겼고 30만 명이 국외로 탈출했다. 이 가운데 500여 명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멀고 먼 제주에 발을 디뎠다.

이들은 곧 대한민국의 관심사가 되었다.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난민법과 무사증제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 왔고 71만 명 넘게 참여했다. 난민을 반대하는 집회와 난민 반대를 반대하는 집회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많다. 옥석은 가려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다해야 한다. 이들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았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시바여왕과 솔로몬왕의 만남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을까.

**“남방 왕국(예멘)의 여왕 시바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들고 찾아가 물었다. 솔로몬은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성경』 열왕기상 10:1~3〉

오늘, 시바의 후손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들고 우리를 찾아왔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 WHITE PAPER ABOUT YEMEN REFUGEES 2018

YEMEN  
SANAA

MALAYSIA  
KUALA LUMPUR

KOREA  
JEJU



#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 1부 홀연히 날아든 난민

제1장 입국심사

제2장 회부심사

## 제1장 입국심사

### 막이 오르다

재스민 혁명, SNS, 24 30 33 42. 제시한 단어와 숫자에서 연상되는 사건은?

2010년 12월. 노점상을 하던 튀니지 청년이 경찰의 단속에 항의하다 분신자살을 한다. 사건이 알려지자 분노한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한다. 튀니지의 국화인 재스민에 비유하여 재스민 혁명이라고 부른다. 시위 장면과 경찰의 진압 영상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민주화 운동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독재자들은 권좌에서 쫓겨난다. 위 숫자는 튀니지의 벤 알리, 이집트의 무바라크, 예멘의 살레, 리비아의 카다피가 독재한 기간이다.

그렇다. 답은 ‘아랍의 봄’이다.

내친 김에 하나 더 내보자. 2015년 이 나라는 아랍의 봄 여파로 내전이 발발한다. 2017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를 잇는 항공노선이 개설된다. 이 둘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기미는 작은 조짐이고, 조짐은 거대한 현상을 이끌고 다가온다. 사소한 기미는 거대한 전체성의 예고라고 했다.<sup>1)</sup> 조짐을 감지한 바람개비가 세차게 돌아간다. 풍향계 화살표가 무대의 방향을 가리킨다.

막이 오른다. 커튼 뒤로 어슴푸레하게 등장인물들이 비친다.

---

1) 김훈의 『자전거 여행』 중에서.



## 시바의 후에, 제주무대에 서다

2018년 5월 2일 제주공항 입국심사장. 항공기 운항일정 모니터에 에어아시아 D7 501편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표시가 뜬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비행기다. 심사관들은 자세를 가다듬는다. 분위기는 숙연하다. 사뭇 비장하다. 최근 제주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가 출신들이 이날은 작정한 듯 파상 공세를 예고한 터다. 대한민국 수문장의 마음이 가벼울 리 없다. 제주청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일찌감치 현장에 자리했다.

오후 2시 20분. 시선이 쏠린 가운데 오늘의 관심 인물들이 한 명 두 명 베일을 벗고 속속 모습을 드러낸다. 곱슬머리에 거무스름한 피부, 덩수룩한 수염에 크고 깊은 눈. 승객들 틈바구니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예멘인 81명. 이날 등장을 예고한 모두가 한 무대에 섰다.

심사관들은 요즘 들어 예멘인의 움직임이 범상치 않아 가뜰이나 신경 쓰이던 차에 이런 초유의 상황을 맞았으니 갈피를 못 잡을 만도 하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입국심사가 시작된다. 입국신고서의 '입국목적' 칸에 눈이 먼저 간다. 관광에 체크되어 있다. 쿵.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날인한다. 다른 심사부스에서 아랍어 통역요원을 부른다. 질문과 대답이 오가더니 승객은 재심 사무실로 향한다. 심사가 마무리 되었다. 일부만 재심 사무실에 남고 대부분은 여권을 받아 챙기고는 입국심사장 밖으로 총총히 사라진다. 제주도에서만 머물다 30일 안에 돌아가야 하는 조건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른바 제주 무사증입국 자격이다.

2017년 12월. 에어아시아 항공사가 운영하는 쿠알라룸푸르-제주 항공노선이 신규 취항하자 그곳에 체류하던 예멘인들이 무사증의 날개에 몸을 실었다. 올 초부터 간간이 제주공항의 문을 두드리더니 4월 중순이 되자 봇물 터진 듯 밀려들었다. 그리고 이날 정점을 찍었다.

낮선 이방인의 대규모 입국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주의 한 언론사<sup>2)</sup>에서 예멘인의 대규모 입국 소식을 전하자 연이어 주요 매스컴에서 기사를 쏟아냈다.

---

2) 제주신보는 5월 3일자 '중동 출신 예멘인 78명 제주에 왜 왔다' 제하의 기사에서 언론사 최초로 예멘인 입국 문제를 다루었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들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고, 정부는 무사증입국 제도의 빛과 그림자를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며 면밀한 분석에 들어간다.

##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의 부침(浮沈)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2002년 공포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여 제주도에 30일 동안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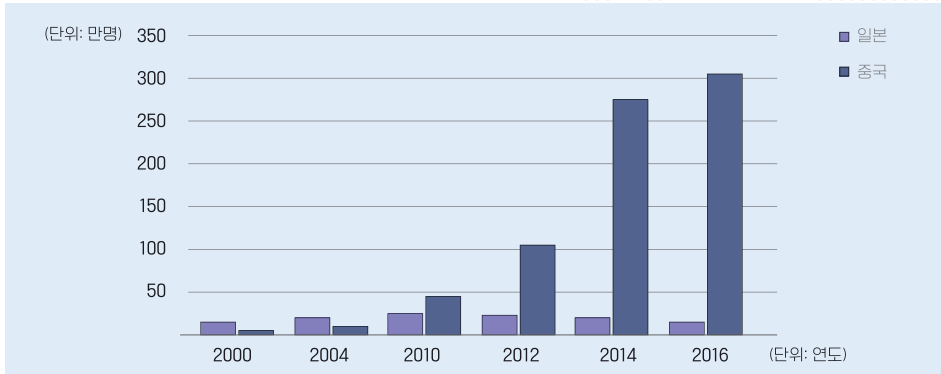
제주도는 복합 휴양단지와 테마공원, 관광미항을 건설하고 관광지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내리는 등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그간 일본인 일색이던 제주에 중국인 관광객이 찾기 시작했다. 해가 더할수록 방문객은 늘어났고 중국은 무사증입국 제도 최대 이용국이 되었다. 제주는 그들에 맞춰 관광시장을 재편한다. 호텔, 관광지, 길거리 이정표, 상점에 중국어가 나붙는다. 여기에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의 변형인 관광상륙허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형 크루즈선에서는 매일 3천여 명의 관광객이 쏟아졌다. 중국인이 제주 여행을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사증입국 제도라는 연구 결과<sup>4)</sup>가 나온다. 무사증입국 제도는 빛을 발했고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로 도약하고 있었다.

3) 제주무사증 제외 11개국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4) 제주관광공사에서 발간한 ‘제주관광 이슈포커스 7월호’에 따르면 중국 청년층이 자유 여행지로 제주도를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사증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도별 일본·중국 관광객



제주도는 관광시장 다변화의 길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쿠알라룸푸르-제주 항공노선을 개척하기에 이른다. 제주 하늘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반긴 이는 말레이시아인만이 아니다. 그곳에 체류하던 외국인,<sup>5)</sup> 특히 예멘인에게 청신호가 켜졌다. 그들은 내전을 피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넘어갔다. 쿠알라룸푸르 근처에 예멘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멘공동체와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직장을 구했다. 말레이시아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어 일하다 잡히면 벌금을 내야 했고 단속을 피하려면 일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지만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국이 아니기에 이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었다. 신분 불안을 느끼거나 좀 더 나은 환경을 바라던 예멘인들에게 제주도는 새로운 선택지가 되었다.

한 명 두 명 제주를 찾기 시작한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SNS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린다. 한국의 난민신청 제도와 제주 무사증입국 소식이 사회관계망을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갔다. 제주행은 대세가 되었고 두어 달 사이 집중적으로 몰려왔다. 일부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 신청을 했고, 더 많은 이들은 입국 후 제주청에 찾아가 난민신청서<sup>6)</sup>를 내밀었다. 관광객 유치에 위해 도입된

5) 말레이시아 체류 외국인 중 유엔난민기구에 비호신청한 자는 157,580명이고 이 가운데 2,830명이 예멘 출신이다. 예멘인 전체 체류자는 공식 집계 자료가 없으나, 난민신청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3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6) 예멘인 입국자 561명 중에서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난민신청자 중 남성은 504명, 여성은 45명이며, 이들 중 17세 미만인 사람이 26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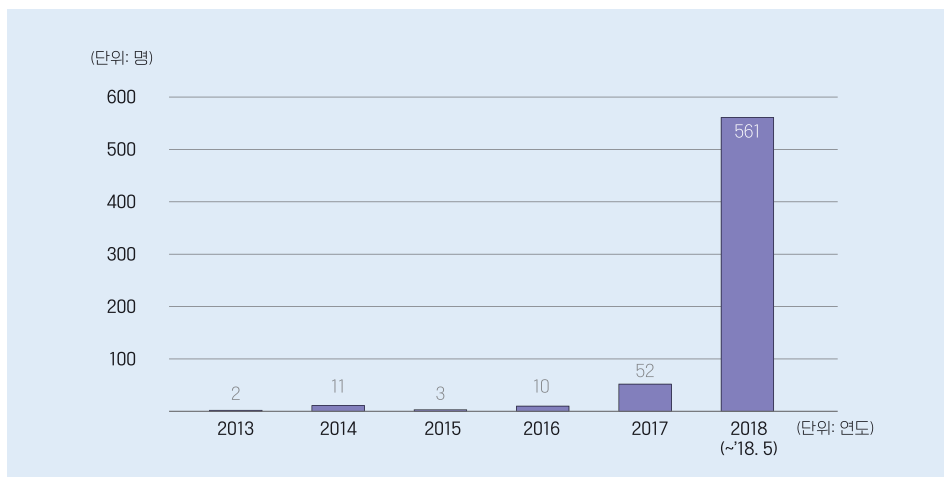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가 이들에게는 난민 신청을 위한 통로로 이용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을 제주 무사증입국 가능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렸다.<sup>7)</sup> 이제 예멘인은 비자 없이는 대한민국 어느 곳으로도 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

## 변화의 조짐

예멘인이 제주에서 존재감을 높인 데에는 에어아시아 D7 501편<sup>8)</sup>이 있었다. 통계만 놓고 보면 그렇다. 그간 제주를 찾은 예멘인은 2013년부터 4년 동안 26명, 2017년 52명이었다. 5년 동안 78명이라면 존재감은 미미하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상황이 급변하여 1~5월까지 5개월 만에 561명이 입국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3월까지 입국자는 48명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4월에는 81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5월에는 432명으로 단 2개월 만에 513명이 입국하였다.

그림 2 연도별 예멘인 입국자(제주)



7) 법무부는 2002년 1월 예멘을 무사증입국 허가 국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2월 예멘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2014년 7월 1일부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예멘인의 제주 무사증입국을 계속 허용하고 있었다.

8) 2018년 12월 12일 제주 첫 취항. 주 4회(월 화 수 토) 운항. 승객 정원 377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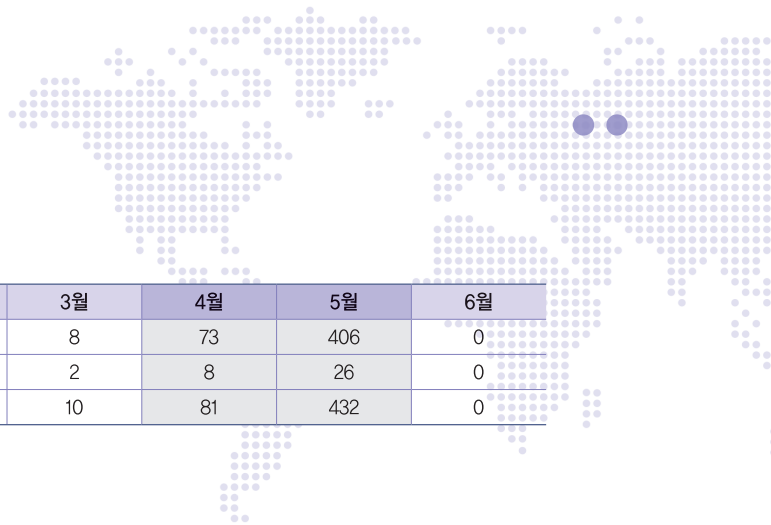


표 1 2018년 예멘인 입국자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남  | 10 | 14 | 8  | 73 | 406 | 0  |
| 여  | 4  | 10 | 2  | 8  | 26  | 0  |
| 합계 | 14 | 24 | 10 | 81 | 432 | 0  |

## 거대한 전체성의 실체

2018년 들어 예멘인의 움직임은 종잡을 수가 없다. 뜸하다가 며칠을 4~5명씩 짝을 이뤄 오곤 하더니 다시 잠잠해진다. 몇 달 동안 난민신청자도 없다. 4월 3일에 이르자 개척자가 나타난다. 2명이 13장에 달하는 난민신청서에 사연을 적고 있다. 이들은 달랐다. ‘입국불허 되면 난민신청 한다.’는 기존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난민신청서를 내밀었다. 최초의 사례다. 난민신청 사유로 후티 반군의 살해 위협을 들었는데, 면접을 거쳐 4월 10일 회부결정을 하였다.

이 날을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승객이 폭증하고 이에 비례해 난민 신청자도 급증한다. 새로운 공식을 따르는 사람도 생겨난다. 재심 사무실에 인계 되면 후티 반군 때문에 못살겠다며 신청서를 찾는다. 물론 관행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반군을 들먹이기는 매한가지지만, 한 날은 공항에 도착한 6명이 모두 여행 일정이 아니라 반군의 위협을 입에 올린다. 너도나도 후티 반군을 들고 왔다.

4월 28일 토요일, 출국대기실 경비직원이 재심 사무실에 들러서는 한 마디 툇 던지고 간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예멘인이 스물 대여섯 명 온다던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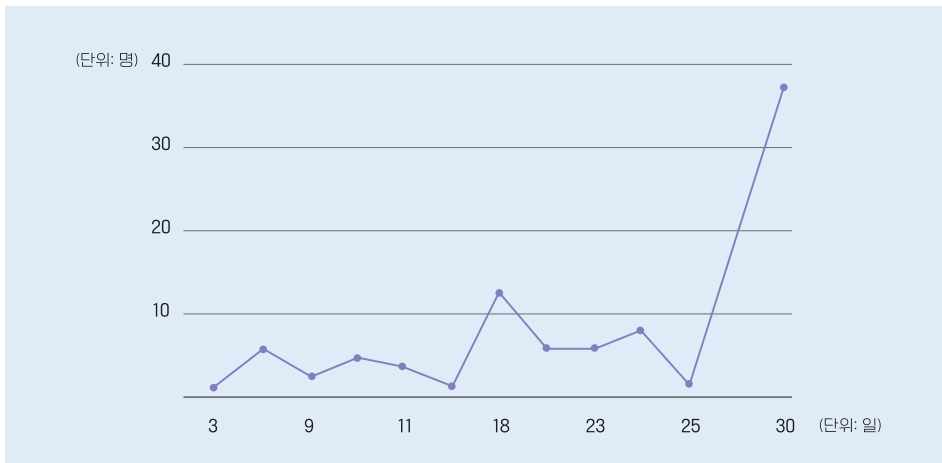
‘이 양반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흘려들었는데 스물 대여섯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리에 맴돈다. 찝찝하다. 예약자 수가 궁금해 D7 직원에게 전화를 넣었다. 다시 물었다. 들려오는 숫자는 똑 같다. 35명. 그것도 하루에.

제주청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35명이 모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7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했다. 제주청은 세 가지 방안<sup>9)</sup>을 마련하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공항 내 난민심사 대기실 공간 부족, 심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관광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입국 조치하고,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사람만 재심에 인계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심사 방침을 정하였다. 뒤에서 부연하겠지만, 이전에는 관광이라 주장하더라도 대부분 재심실로 인계하여 정밀심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7일 이내 회부심사를 하여 최종 입국 여부를 결정하였다.

4월 30일 월요일. 한 명 더 늘어난 36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등에 업힌 아기, 아빠 손을 잡은 어린이, 형제, 친구 등등 면면이 다양하다. 심사대에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올려놓는다. 신고서에는 관광이라고 체크했다. 쿵 쿵. 심사인 날인 하는 소리가 부스마다 들린다. 어느덧 심사가 끝났다. 난민신청자는 한 명도 없다.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친 입국심사장은 고요를 되찾는다.

승객 81명, 난민신청 34명으로 4월을 마무리했다.

그림 3 2018년 4월, 일별 예멘인 입국자 수



9) ①안: 관광목적 입국 시 입국심사, 난민신청자 재심 인계(단기)  
 ②안: 난민신청 시 회부심사절차 간소화, 행동지역 제주로 제한(단기)  
 ③안: 예멘 제주 무사증입국 허용국가에서 제외(중장기)

5월은 첫 날부터 돌풍을 예고한다. 예약자는 어제보다 늘어난 42명. 승객정보 분석에 들어갔다. 10여 명은 재심 인계가 예상된다. 위변조 여권 소지자와 입국불허 전력이 있는 사람도 보인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헤아려 방안을 마련했다. 심사인원을 늘리고 아랍어 통역요원도 섭외한다. 인원 수에 맞게 난민신청서류를 준비하고 기존 출국대기자를 조속히 송환해 대기 공간을 확보한다. 물론 심사 방향은 어제와 달라진 게 없다.

5월 1일 화요일. D7 항공기에 최종 탑승한 예멘인은 38명. 입국 30명, 난민신청 8명으로 심사를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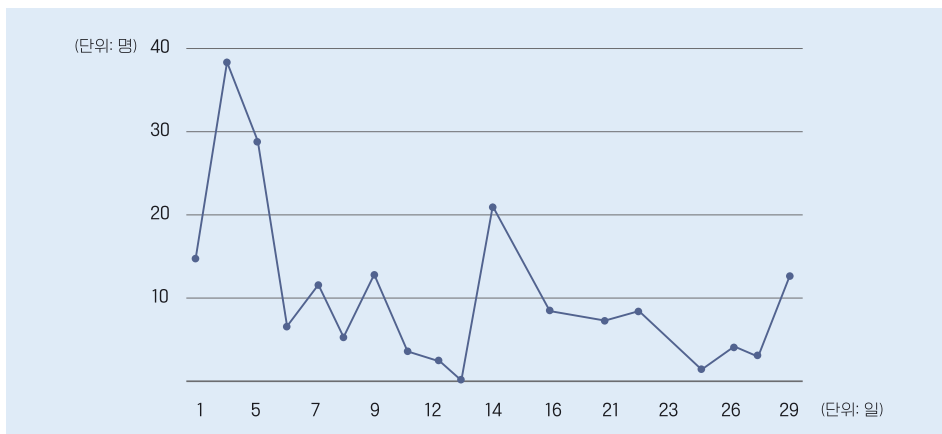
여기서 끝일 리 없다. 다음날 예멘인 승객 예약자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다. 89명.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다. 사소한 기미가 예고한, 거대한 전체성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5월 2일 수요일. 최종 탑승객 81명. 난민신청을 한 7명만 남고 나머지는 공항을 벗어나 각자 예정한 길을 갔다.

새 국면을 맞아 제주청은 예멘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숙고에 들어간다. 비단 법무 부만의 사안이 아니다.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의 운영을 두고 제주도청과 협의하고, 안보와 치안을 의제로 국정원, 경찰청과 공조한다.

65명, 37명, 38명 ... 바람은 잦아들지 않는다. 5월에만 승객 432명,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42명을 기록했다.

그림 4 2018년 5월, 일별 예멘인 입국자 수



## 심사방향을 정하기까지

출입국심사관이라면 한 번 쬼은 품어봤을 가정법(假定法)이 있다. 규제자를 잘 보았더라면, 여권과 실물을 제대로 대조했더라면, 승객의 무례를 꼭 참아냈더라면... 입국심사관이 외국인 1명을 심사하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에 심사관은 규제자 검색과 바이오정보 취득은 물론, 여권을 살펴 위변조된 것은 아닌지 불법체류 할 사람은 아닌지 훑어보아야 하고, 여권을 집어던지듯 하는 승객의 감정까지 보듬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크고 작은 실수나 마찰이 생겨난다. 문제가 불거지면 심사관은 곤욕을 치르면서 당시를 복기한다. 그때 여차저차 할 걸!

공항에서는 이런 가정법을 최소화할 여러 장치를 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재심사 제도다. 심사관은 승객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속하게 입국심사하고 시간이 걸리거나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은 재심 사무실로 넘긴다. 재심직원은 형식적 요건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시간을 갖고 정밀 심사한다. 통상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출신이 재심에 많이 인계된다. 제주공항 재심 사무실 이용자는 중국인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D7 항공편의 등장으로 동남아와 아랍 출신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들 다수는 오던 길을 거슬러 다시 D7에 오르는 게 보통이었다.

D7 승객 가운데 재심 인계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예멘이다. 4월 한 달 동안 예멘인 도착자 60명 가운데 58명이 재심에 인계되었다.<sup>10)</sup> 그러다 4월 30일을 기점으로 예멘인 재심 인계가 확연히 줄어든다. 4월 30일에 도착한 36명 가운데 여권 판독 문제로 재심 인계된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장에서 통과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장심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있었다.

첫째, 시간과 인원 문제다. 36명을 일거에 재심 사무실로 인계하여 정밀심사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재심업무 담당직원은 2명에 불과하나, 재심사를

10) 재심처리 결과 : 총 58명 중 입국허가 43명, 송환 15명  
- 입국자 43명 중 난민신청은 34명이며, 이중 24명은 곧바로 난민신청을 하였고, 8명은 입국이 불허 되자 난민신청을 함(8명 중 4명은 회부, 4명은 불회부)



해야 할 외국인은 수시로 인계되니 예멘인만 붙들고 있을 수 없다. 36명을 재심사하려면 7~8시간은 족히 걸리는데 이마저도 그동안 다른 외국인이 1명도 재심으로 인계 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D7 편에는 예멘인 외에도 재심인계 대상자가 수두룩하다. 따라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사무실로 인계하여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도 하거니와 정밀심사라는 재심 본연의 업무수행도 곤란하다.

둘째, 대기 장소 문제다. 제주공항은 난민심사 대기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난민신청자는 입국불허자와 출국대기실을 같이 사용한다. 법적으로는 난민심사 대기실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단시간 내 송환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출국대기실에 난민인정심사 불허부된 외국인도 이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불허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책 수립을 권고<sup>11)</sup>하고 있다.

셋째, 난민전문통역인 문제다. 제주에는 아랍어 전문 통역인이 없다. 다른 지역에서 통역인을 섭외하여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초빙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일정 맞추기도 쉽지 않다. 출입국업무를 우선으로 해주는 통역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통역인을 구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난민 신청이 많아지면 통역 수요도 증가하게 되는데, 통역인들이 출입국 입맛에 맞게만 응해주는 건 아니기에 7일 안에 대규모 신청자에 대한 회부심사를 완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다수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도 못해보고 입국시켜야 한다. 신청자는 공항에서 1주일을 기다리다 체류지 사무소에 가서 다시 신청하고 심사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

11)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2016.8.25.)



## 패턴 속의 진실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미루어 짐작해 볼 만한 단서는 있다. 과거의 행태를 살펴 패턴을 찾아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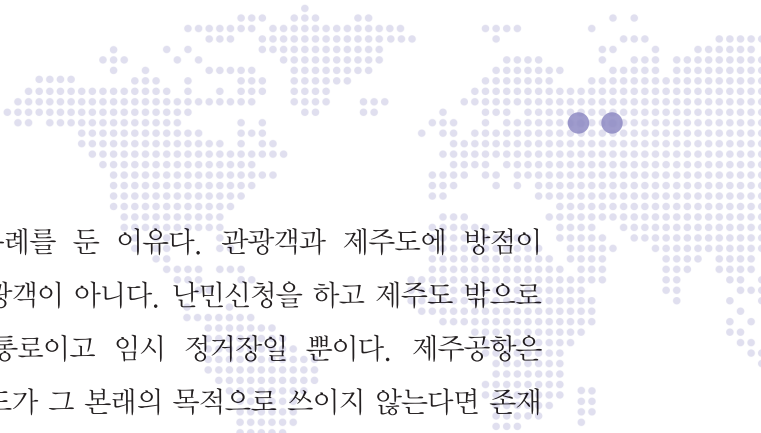
예멘인의 움직임을 쫓아가보면 그들의 의중을 짚어낼 수 있다. 불법체류자는 한 명도 없는데 출국한 사람<sup>12)</sup>은 극소수에 불과하니 조각 하나가 빠진 듯하다. 빈 칸에 난민신청 숫자를 넣어보면 아귀가 맞아 떨어진다. 2018년 4개월 동안의 입국자 129명 중 5명만이 출국하고 나머지 124명이 모두 난민신청을 했다. 여기에 체류지 변경을 더하면 그림이 완성된다. 2016년부터 체류지 제한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18년 3월 말까지 난민신청을 한 96명 중 94명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갔다. 정리해보면 ① 제주 무사증입국 ② 난민신청 ③ 체류지 변경 수순의 패턴이 한 눈에 들어온다.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는 입국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난민신청은 관광객이 아님을 반증한다. 체류지 변경은 제주도가 정착지가 아님을 보여준다.

제주청은 4월 중순 들어 예멘 승객의 증가 양상과 체류 패턴을 분석한 결과,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멘을 제주 무사증입국 국가에서 제외”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개진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인의 동향을 파악하여 본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관계기관과도 공유하였다. 이런 가운데 4월 30일을 맞았다.

예멘인의 대규모 입국 행렬은 5월 2일 정점을 찍고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5월 중순에 접어들자 도착 유형이 급변했다. 5월 8일 예멘에서 출발한 후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제주에 곧바로 도착하는 사례가 처음 발생하더니 이후로 본격화 되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거세지는 바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얼마나 몰려올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예멘 본토에 거주하는 젊은이들도 행렬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난민신청이 예견되는 이들을 마냥 입국불허 할 수도, 그렇다고 관광객이 아닌 이들을 언제까지고 입국시킬 수도 없다. 딜레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제주 무사증 제도는 관광객 유치에 목적이다.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12) 2017년 입국자 52명 중 7명 출국. 2018년 1~4월 입국자 129명 중 5명 출국(난민신청자 제외)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대한 특례를 둔 이유다. 관광객과 제주도에 방점이 찍혀있다. 예멘인은 어떠한가. 관광객이 아니다. 난민신청을 하고 제주도 밖으로 나갔다. 이들에게 제주는 환승 통로이고 임시 정거장일 뿐이다. 제주공항은 허브공항을 표방한 적이 없다. 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 예멘인 절대다수가 제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예멘인 앞에서 그 취지를 잃었다. 관광객 유치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멘인 제주 무사증입국 제외’라는 정책적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 고국을 등진 사연

난민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제주에 오게 된 내막을 들을 수 있었다. 제주행을 결행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예멘인들은 내전이 거세 지던 2015년을 전후로 하여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다. 말레이시아로 피신한 디아스포라들은 쿠알라룸푸르 근처에 공동체를 형성한다. ‘세르당’에 모여 살고 ‘부킷 빈탕’에서 만나곤 한다. 난민협회에도 가입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 SNS다. 이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는 이방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소통하고 교류하며 직업 정보를 나눈다.

일 자리를 구하지만 쉽지 않다. ‘몇 년이든 살되 일은 하지 말라’는 말레이시아 이민국의 정책 때문이다.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카드를 만들어 주지만 아무런 혜택도 효력도 없다.

보다 나은 곳으로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꿈꾸는 이들에게 제주도가 예멘인들도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해 주는 안전한 나라, 일자리 여건도 좋은 나라로 알려진다.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제주도가 입에 오르내린다. SNS는 ‘누구누구가 제주도에 갔고, 누구는 입국 못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며 제주공항 동향을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여행사도 여기에 가세한다. 자신들이 보낸 사람이 제주에 많이 들어갔다면 항공권을 사라고 홍보한다. 입국 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제주공항이 곧

문을 닫아 버릴 거라는 소문이 돈다.

결정의 시간... D7 항공기에 몸을 싣는다. 머나먼 제주에까지 오게 된 대강의 사연은 이러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는 난민심사 불회부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는 안전한 국가일까.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난민신청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게 체류는 허가해준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면접에서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그곳에서 받은 처우를 파악하여 안전한 국가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난민인정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류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강제송환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면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반대로, 계속하여 체류허가를 받으며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안전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말레이시아가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보호하는 어떠한 법적 체계나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고 비호대상자도 체포하여 추방한다는 게 이유다.

말레이시아는 체류 연장허가에는 관대하나 취업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는 신청자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신청자의 여권으로도 금방 확인이 된다. 여권 속지에는 체류 연장허가 스티커가 수없이 부착되어 있고 그 하단에 ‘체류지역 제한 및 취업 금지’ 문구가 분명하게 적혀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들이 체류 연장을 받지 못해 제주로 왔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더 살 수는 있으나 내일의 빵까지 보장받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생계활동이 가능한 나라를 찾아 나선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 제2장 회부심사

### 난민제도의 이해

한국의 난민<sup>13)</sup> 제도는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신청하는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과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체류지 난민인정 신청’ 두 갈래로 나뉜다. 실무에서는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를 회부심사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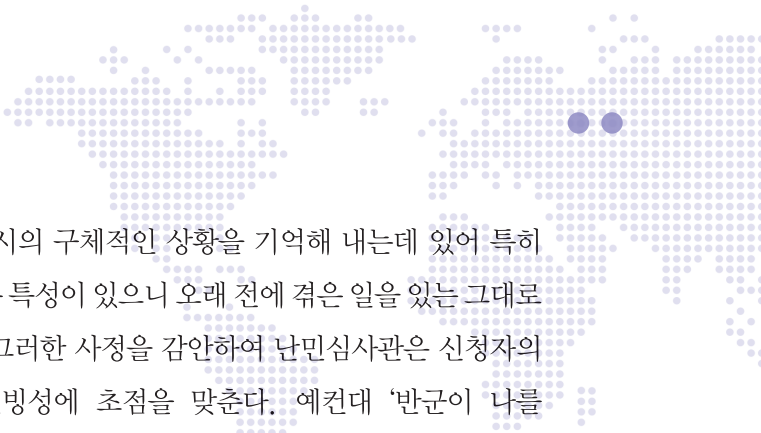
회부심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는 절차로, 기한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 취지는 난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속하게 난민신청자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을 미리 방지하는 데 있다.<sup>14)</sup>

난민심사관은 면접 등을 통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 단계에서 신청자가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심사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입국하여 정식으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본국으로 송환된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이르러서는 진술이 오락가락

13)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14)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4누52093.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대해 이처럼 따로 규정한 취지는, 입국 전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자격 있는 신청자로 하여금 단시간 내에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을 미리 방지해 심사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하는 경우가 있다. 박해를 받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해 내는데 있어 특히 그렇다. 물론 기억은 망각, 왜곡되는 특성이 있으니 오래 전에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기억해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난민심사관은 신청자의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반군이 나를 잡아가겠다고 협박하여 도망 나왔다’는 주장을 한다면, ‘협박과 도망’은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신청자는 사건의 맥락을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설득력을 얻는다. 진술이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일관성과 설득력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15)</sup>

난민심사관은 신청자의 입을 통해 그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그 공포가 어떠한지 등을 듣고 기록한다. 그리고 판가름한다. 정식심사에 회부할지, 아니면 불회부하여 돌려보낼지. 그러니 신청자는 면접조서가 신빙성 있는 진술로 채워질 수 있도록 자신이 겪은 상황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야 한다.

이제 면접실로 자리를 옮겨 신청자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지 들어보자.

## 출처는 의문부호

4월 10일. 이날에 대한 기억은 각별하다. 공항 난민신청자 2명을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에서도 이들의 입국 여부에 큰 관심을 가졌다. 앞에서 말한 정공법을 들고 나온 개척자 이야기다.

4월 3일. 젊은 예멘인 2명이 재심 사무실에 인계되었다. 멍청멍청 하더니 재심 직원에게 서류 2장을 내민다. UNHCR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영어 난민신청 안내문이다. 같은 공책에서 찢은 종이도 두 장씩 들고 있다. 영어로 쓴 진술서인데 둘 다

---

15) 대법원 판례. 2007두3930.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뿐만 아니라 난민의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

필체가 같다. 이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 아랍어 신청서를 나눠 주었다. 접수를 받으며 대충 어떤 사연인지 물었더니 대뜸 변호사를 들먹인다.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알고 보니 UNHCR 직원을 이르는 말이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이들에게 난민신청 방법을 안내했음을 짐작케 했다.

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청서류와 국가정황을 살펴보고 예상 질문지를 만들었다. 노트 다섯 장에는 수많은 의문부호가 답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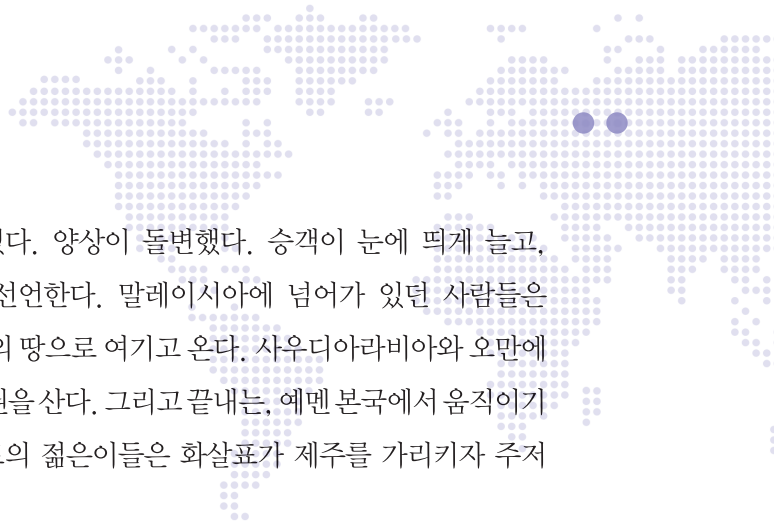
회부심사에 들어갔다. 2명은 20대 초반의 삼촌과 조카 관계로, 조카가 1살 더 많다. 난민신청 사유는 동일하다. 삼촌은 이발사이고 조카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 어느 날 조카가 삼촌이 일하는 이발소에 놀러 간다. 삼촌의 처남이 갑자기 들이닥쳐 이발사 직업을 꼬투리 삼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둘은 이발소를 도망 나와서 숨어 지내다 말레이시아로 탈출한다. 이들은 예멘에서는 이발사를 천민으로 여기고, 협박을 한 사람은 후터 반군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예멘에서 이발사가 천민에 속하는지는 알 길이 없으니 부정하기 힘들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삼촌은 결혼 전부터 이발사였는데 몇 년이 지나고서야 갑자기 박해를 당하고, 위협받은 사람은 삼촌인데 조카가 덩달아 탈출하다니. 심지어 난민신청서와 미리 준비해 온 박해 진술서는 이발사 직업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큰 줄기만 같을 뿐 사건 일시, 상황, 피신 내용이 모두 다르다.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말한다. 박해의 중요 부분 진술은 일치점을 찾기 힘들 정도다. 난민법의 잣대로만 본다면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예멘 정황은 어떠한가. 살벌하다. 피아를 구분하지 않는 공습과 폭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돌려보낸다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UNHCR 한국대표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면담을 요청<sup>16)</sup>하였다. 결정 기한은 4월 10일이다. 여러 정황을 고려한 끝에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서 깊이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보아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sup>17)</sup>하였다.

16) 난민법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신청자 면담이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등을 요청할 경우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회부결정을 받으면 난민신청자 신분이 된다. 외국인등록을 하고, 난민인정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정심사에서 받아들여지면 난민인정자 신분으로 바뀐다.



심사회부 결정은 파장을 일으켰다. 양상이 돌변했다. 승객이 눈에 띄게 늘고, 이제 공항에서 바로 난민이라고 선언한다. 말레이시아에 넘어가 있던 사람들은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제주를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온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제주행 항공권을 산다. 그리고 끝내는, 예멘 본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풍향계를 지켜보던 본토의 젊은이들은 화살표가 제주를 가리키자 주저함이 없었다.

예멘에서는 정말로 이발사를 천민 취급할까. 천민과 난민의 미묘한 차이를 되뇌며 입국심사인을 들었다. 노트에는 풀리지 않은 의문부호들이 뒤엉켜 춤을 추고 있다.

## 최종 목적지는 이태원?

강제되거나 입국불허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위조 여권을 만들어 다시 입국 시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들은 심사관의 판단을 흐리게 할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다.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여권을 가져 오거나 여권의 인적사항을 통째로 바뀌오기도 한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첫 방문인 양 꾸미는 것이다. 과연 공항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통하리라 생각했다면 한국을 너무 얕본 거다. 세계적인 한국의 IT 기술은 국경 관리시스템에 그대로 녹아 있다. 시스템은 입국자가 제공하는 지문 안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즉각 검출해 낸다. 기술은 과거를 캐묻는다.

위조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되자 난민 신청한 사람이 있다. 바이오정보에서 두 개의 인적사항이 검출되었는데 동일인으로 판명 났다. 4년 전 인천공항에서 입국불허 되어 돌아갔다가 이번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온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난민신청을 했으니 접수를 받았다. 이 경우 검토해야 할 사안은 두 가지다. 난민 신청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난민신청이 이유 있는지.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난민신청 하려고 위조여권을 사용한 자는



불회부 대상이다. 다만, 난민신청을 하기 위하여 자국 탈출 수단으로 위조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스스로 밝힌 경우에는,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회부 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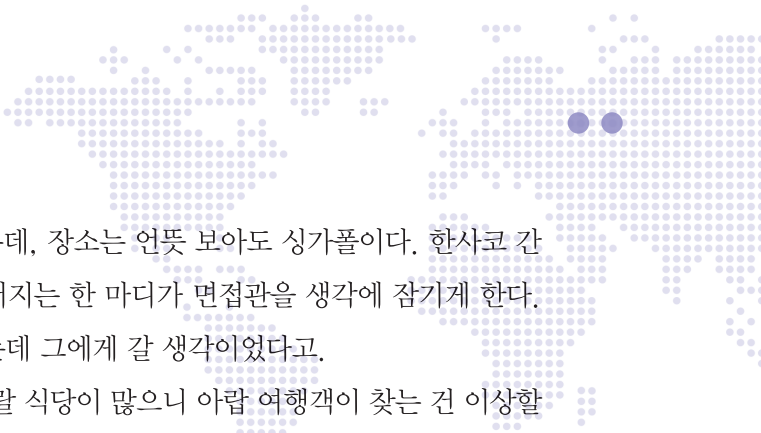
신청자는 왜 위조여권을 만들었을까.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서였다. 2014년 한국에서 입국불허 될 당시 출발국인 말레이시아로 송환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입국 불허당하여 예멘으로 돌아갔다. 2년 후, 말레이시아 입국불허 전력을 숨기기 위해 위조여권을 만들어 다시 입국을 시도하였고 위조여권은 통했다. 예멘에서 출국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자국을 탈출하기 위해 위조여권을 만든 건 아니었다. 난민법상 불회부 대상이다.

여권을 펼쳐보니 싱가포르 체류허가인이 찍혀 있다. 여권 기록상 싱가포르에 1년 6개월을 거주하였는데, 간 적 없다며 여권에 찍혀 있는 체류허가 기록들은 모두 위조라고 우긴다. 사실이라면 2016년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후 계속 불법체류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불법체류자를 본국 송환이 아니라 제3국으로 여행 보내는 이민 당국은 없다.

난민신청 사유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이슬람사원에서 종지기로 일하던 동생이 실종된다. 1년 뒤 후티 반군이 신청인 마을을 점령한다. 반군은 동생이 사우디와 내통하고 있다며 집을 찾아와 수색한다. 그래서 무서워 도망 나왔다는 게 요지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 해도 동생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반군이 실종된 지 오래된 동생을 찾으러 왔다는 진술은 생뚱맞다. 반군의 집 수색 과정 진술은 차라리 안 물어보는 게 나을 뻔 했다. 수색이 한 번이다, 세 번이다. 당시 집에 있었다, 없었다. 질문할 때마다 말이 바뀌고 또 바뀐다. 분명한 건 위협이나 박해 받은 사실이 없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본국을 탈출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불회부 했다.

‘샤와르마’라는 아랍 요리가 있다. 긴 꼬챙이에 양념한 닭고기나 쇠고기를 끼워서 불에 구운 다음 칼로 얇게 잘라 빵에 싸서 먹는 음식이다. 불회부 결정을 고지한 뒤 잠깐 여담을 나눴는데, 이 친구 알고 보니 샤와르마 요리사다. 요리사 복장을



하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는데, 장소는 언뜻 보아도 싱가포르이다. 한사코 간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니, 이어지는 한 마디가 면접관을 생각에 잠기게 한다.  
서울 이태원에 먼저 온 친구가 있는데 그에게 갈 생각이었다고.

이태원에 이슬람사원이 있고 할랄 식당이 많으니 아랍 여행객이 찾는 건 이상할  
게 없다지만, 그 곳으로 예멘인이 진출했다니. 제주로 온 예멘인이 거기로 간다?  
무사증제도를 한국 입국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 사우디에서 태어난 청년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계속 살던 사람이 국적국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난민신청을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신청한  
내용에 달렸다. 안전한 국가에서 왔으면 불허부 하는 게 마땅하나 그 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살던 약관의 청년이 제주를 찾았다.  
손에는 영어로 된 난민신청 안내문이 들려 있었다. 서류를 접수하고 출국대기실에  
묵게 했더니 입국불허 조치로 받아들였는지 잔뜩 골이 나 있다. 돌려보낼 거면서  
뭘 더 캐내려고 이러냐는 듯. 그러더니 어느 순간 태도를 바꾸어 궁금증 해결사  
역할을 자처한다.

난민신청 사유는 간단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에 체류하는 예멘인을 추방  
한다는 소문이 돌자 송환되면 반군에 징집 당할까봐 도망나왔다는 거다.

사실일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바로 확인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피란민을 비자 면제하여 받아주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는  
기사도 있긴 한데 신청인은 합법체류자다. 추방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반군을 소탕하려고 예멘 내전에 개입하고 있으니 예멘인을  
추방할 리 만무하다.

사우디 어찌고 하는 말은 핑계고, 실상은 이랬다. 사우디의 경제난으로 일자리가  
불안해지자 유럽으로 눈을 돌린다. 조지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밀항할

생각이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계획이 틀어진다. 그곳에서 제주에 예멘인을 많이 보내기로 소문난 여행사를 알게 된다. 여행사는 제주의 상황을 지켜보다 출발 날짜를 잡아준다. 유럽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나섰다가 제주까지 오게 된 사연이다.

신청자는 말레이시아에 50일을 머물렀는데, 그 곳의 사정을 꿰고 있다. 이 친구가 풀어놓은 이야기 보따리에는 말레이시아에 사는 예멘인의 생활상이나 제주행에 작용한 여러 요인들이 들어 있었다. 예멘인은 경찰의 단속과 뇌물요구, 차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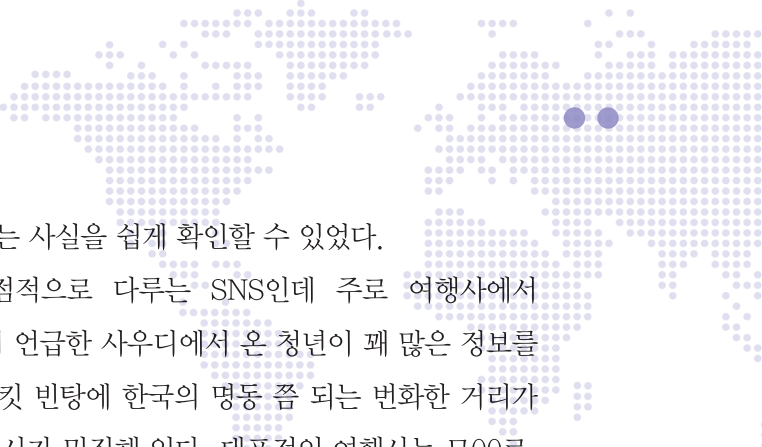
생활상을 듣고서야 이들이 제주로 몰려오는 이유를 조금은 알 듯 했다. 인권과 경제사정이 보다 나은 한국을 탈출구로 삼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SNS가 꽃피운 봄

난민면접을 하다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 한 날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 면접을 잠깐 멈추고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붙였다. 난민 신청이 넘쳐나 쉬는 날도 없이 강행군 하다 보니 피로가 쌓였던 탓이다. 이들에게는 면접관의 체력도 관심사가 되는 모양이다. 며칠 뒤에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아랍인이 만들었는데 번역 해보면 ‘난민 면접관이 피곤에 절어있다. 제주도도 와라.’ 뭐 이런 내용이다. 조회 수는 벌써 수천에 달해 있었다. 재빠른 정보 수집 능력에 경의를 표해야 할지, 내용에 경악해야 할지 대략난감 할 따름이다.

신청자들이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면접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뤄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SNS는 이들의 한국행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었다. 진술을 들어보면 그 위력을 실감할 것이다.

먼저 친목 성격의 SNS로, 예멘인 회원이 많은 페이스북 계정에 가입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여기에는 잡다한 일상사가 다 올라오는데 제주도의 난민정보도 찾을 수 있었다. 한 신청자의 페이스북에는 5월 초에 제주의 모 신문사에서 작성한 난민 기사가 번역도 되지 않은 채 캡처되어 있고 그 밑에 아랍어 댓글이 몇 개 달려있다.



SNS에 제주의 정보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난민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SNS인데 주로 여행사에서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우디에서 온 청년이 꽤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쿠알라룸푸르 인근의 부킷 빈탕에 한국의 명동 쯤 되는 변화한 거리가 있는데, 아랍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가 밀집해 있다. 대표적인 여행사는 모00로, 한국에 예멘인을 가장 많이 보낸다. 제주에 입국한 사람이 모00에 소식을 전하면 모00는 A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항공권 구매 희망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언제 비행기를 타면 될지 날짜도 정해준다. 한국에 도착하면 SNS를 삭제하고 입국한 뒤에 다시 계정 요청을 하라고도 알려준다. 이 친구의 휴대폰에는 A앱이 없다. 여행사의 안내에 따라 삭제 했다고 한다. 계정을 복구해서 보여 주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태도를 바꾸어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SNS가 있는데 주로 A앱과 B앱을 이용한다. 여기에 트위터나 유튜브에 올라 있는 제주 난민 자료를 링크하고, 제주에 입국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도 올린다. 한국에 먼저 온 예멘인과 개인적으로 닿아있는 끈이 바로 이 메신저다. 유튜브에 게시된 내용은 면접관을 쓸쓸하게 했다. <참고자료 2> ‘정유지 국가에서는 사진을 찍어 놓아라. 현금을 1,000달러 이상 지참하라. 호텔은 중급 이상을 예약하라. 비자카드를 챙겨라, 잔고는 없어도 상관없다.’ 제주공항 입국 요령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 후티 반군의 얼굴

난민면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다. 바로 후티 반군이다. 공습, 협박, 감옥, 총격전도 자주 등장하지만 결국 후티 반군으로 수렴된다. 예멘 난민은 후티 반군으로 시작해 후티 반군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 후티가 누구이기에 너도나도 들먹일까.

후티 반군은 예멘이 써내려가는 현대사의 가장 큰 축이다. 다음 장에서 깊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난민신청자에게 비친 반군의 모습을 짚막하게 훑어 보겠다.

압도적인 캐릭터는 단연 악당이다. 내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니 불명예를 안을 만하다. 은인의 모습도 보인다. 반군에게 끌려가 반군이 된 사람들인데, 형제나 이웃을 감옥에서 빼내주고 도망을 돕기도 한다. 징집에서는 두 얼굴의 사나이다. 갓 결혼했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유부남은 안 잡아가는 후티는 그래도 인간적이다. 닥치는 대로 잡아가는 피도 눈물도 없는 후티가 ‘표준형’이다. 뇌물은 준다고 끝이 아니다. 행운이 따라야 한다. 떡 하나 챙기고 쿨하게 돌아선다면 그나마 사람 잘 만난 편이다. 자꾸 뜯어 먹다 광주리가 비면 끌고 가는 ‘뒤끝 작렬형’에게 안 걸렸으니 말이다. 포커페이스에게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웃에게 후티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다음날 철장 신세를 지고 있다면 이웃이 정체를 드러낸 거다.

예멘인 개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맞닥뜨린 상황이 다르다 보니 반군의 모습도 다르게 비춰진 것이리라. 의아한 건 반군을 악의 대명사쯤으로 그리면서 정부군한테 박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국가정황을 보면 사우디 연합군과 정부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반군의 박해만을 들먹이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후티의 진짜 모습은 어떠할까. 참수형을 일삼는 테러분자라고 생각했다면, 틀렸다. 난민신청자에게서 그런 진술은 들어본 적이 없다. 뉴스 어디에도 후티 반군이 테러리스트라는 언급은 없다.

사실 후티라는 인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반군을 조직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정부군에 잡혀 사살되었다. 2004년 9월의 일이다.

무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무’(無)에서 건져 올린 ‘덤’이라고 했던가.<sup>18)</sup> 후티의 무는 ‘덤’을 남겼다. 그는 죽어서 이름을 남겼고, 난민을 남겼다. 그리고 제주에 ‘난민’ 화두를 던졌다. 후티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

18) [최재목의 무덤기행] “무덤에서 삶을 생각하다” 1-① ‘천리포수목원의 민병갈’ 중에서.



## 공항심사를 마치며

다난했던 두 달도 세월의 흐름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2년처럼 길게만 느껴진 시간이었다. 면접관 2명은 쉬어 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공항에 살다시피 하며 회부심사에 매달렸다. 난민신청자 76명을 모두 심사하여 69명은 회부하였고, 7명은 불회부하여 송환했다.<sup>19)</sup> 불회부자는 박해와 상관없는 위조여권 소지자와 안전한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해외에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하던 제3국 거주자다.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자도 있었다.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였다. 이들은 내전으로 인한 갖가지 박해를 신청 사유로 들었는데, 일부는 사실 확인이 필요했고 대다수는 박해의 진위뿐 아니라 위중한 국가정황도 고려해야 할 사람으로 보였다.

제주청은 예멘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정보 분석에 들어가 유의미한 내용은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였다. 이때의 초점은 ‘제주에 왜 오는가!’에 맞춰져 있었다. 대거 밀려오던 4월 말부터는 ‘회부심사가 가능한가!’로 초점을 옮겼다. 5월 들어 말레이시아를 위시한 제3국 거주자들뿐 아니라 본토에서도 움직임이 일자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의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렌즈를 갈아 끼웠다.

이쯤 하여 난민신청자 면담과정에서 듣고 느끼고 알게 된 사실을 술회해 볼까 한다. 한국에 왔으니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건 당연하다.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데 대답이 흥미롭다. 한국 사람은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해 준다고 들었다며 “한국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라고 한다.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안다고 아라비안나이트의 야만<sup>20)</sup> 사람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까마는, 사랑한다는 말은 그만큼 한국에 입국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범죄나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들의 말처럼

---

19) 2018년 총 599명이 도착. 31명은 재심 입국불허, 7명은 난민 불회부하여 최종적으로 561명이 입국하였다.

20) 아라비안나이트 ‘알 야만의 남자와 노예계집 여섯’(334번째 밤~338번째 밤) 이야기의 주 무대가 예멘의 ‘사나’다. 알 야만은 예멘을 뜻한다.

한국을 고국처럼 여기고 사랑하기를 기대해 본다.

난민신청자의 이력은 다양하다. 기자, 약사, 항공사 고위직에서부터 서비스직, 노동자, 무직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굳이 분류하자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체류하다 왔느냐에 따라 직업도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말레이시아 체류자는 요리사나 식당 서빙, 여행 가이드, 호텔 종업원이 많다. 쿠알라룸푸르 근처 도시에서 살다보니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은 것 같다. 사우디에서 온 사람은 이슬람 전통 옷 판매원, 보험사 직원, 자동차 정비공, 택시기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직업군으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예멘에서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바로 온 사람은 일용직이거나 농부다. 내전으로 직장이 사라진 예멘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력만큼 다양하지는 않지만 특이한 신분도 눈에 띈다. 무슬림 사회에서도 발붙일 틈은 있었는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와 양성애자가 제주에 와서 신분을 공개했다.

본국의 출신지역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사나, 이브, 타이즈가 3종 세트를 이룬다. 수도인 사나는 현재 후티 반군이 점령하고 있고, 이브는 반군이 우세하나 정부군과의 교전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라고 한다. 타이즈는 내전의 최대 격전지로 어느 한 편의 우세를 점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거나 세 지역 모두 후티 반군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곳이다.

회부심사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하니 항상 시간에 쫓겼다. 기초조사와 통역관 섭외, 면접, 심사보고서 작성에 시간은 늘 면접관 편이 아니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신청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 신청자가 예멘에서는 이발사를 천한 직업으로 여겨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알아볼 길이 마땅치 없었다. 국가정황자료집이나 인터넷에 자료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행운은 누리지 못했다. 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 문의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기다려줄 리 없다.

예멘인은 술한 화제를 뿌리고 이제 무대를 옮겨갔다. 공항의 심사와 직원은 이들의 도래를 현장에서 목도하고 상대한 산 증인이다. 승객정보 분석, 입국심사, 재심사, 난민면접 등 모든 일을 함께 했으니 어찌 소회가 없을까. 직원들의 ‘나도 한 마디’로 이 장을 맺으려 한다.



## 공항심사팀의 토크(Talk Talk)



예멘인 승객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존재였어요.  
어떻게 제주도를 알고 찾아온 건지 신기했고 왜 왔는지 미심  
쩍기도 했지만, 대규모로 몰려오는 이들을 심사하면서 예멘의  
내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심사관 김○○



재심사관  
이○○

반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난민 회부심사를  
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멘의 최근  
정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공항에도 난민전담  
심사관을 배정하여 업무를 전문화하면 좋겠어요. 안그려요  
신팀장님?

동감합니다. 그래서 행정팀에서 최선의 심사방안을 찾는데  
주력했는데, 전례 없는 예멘 러시는 위험과 기회의 경계가  
모호하여 대응책 마련이 쉽지는 않았죠. 청장님이 방향타를  
잡아 주셨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의 항해일지를 써  
나갈 수 있었지요.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행정팀장  
신○○



심사과장  
이○○

예멘인의 출현! 정말로 낯설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예약자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머리를 맞대었지요. 23회의 정보  
보고서가 그 산물 아니겠습니까? 심사과원 모두가 협력하여  
말은바 임무를 완수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전송

